

창세기 / 시작

성 경	창 1~11장	창 12~50장
역 사	태고시대 인류 보편의 역사	족장시대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
내 용	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,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이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.	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우기로 계획하셨습니다.

창세기 1~11장의 구조와 요점

1 창조 (1~2장)	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.		
	1) 천지창조(1장)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.	2) 안식(2:1~3)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친 후 일곱째 날 완성을 기념하고 안식하셨습니다.	3) 인간 창조(2:4~25)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
2 타락 (3~5장)	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.		
	1) 선악과(3장)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하나님에게 반역하여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.	2) 가인과 후손(4장) 가인이 죄에 끌려 아벨을 죽였고, 그의 후손들 가운데 죄는 더 심해졌습니다.	3) 셋의 후손(5장)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은 비교적 경건하였고 그 계보에서 노아가 나왔습니다.
3 홍수 (6~9장)	죄가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땅 위의 생명을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.		
	1) 홍수 경고(6장)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경고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.	2) 홍수 심판(7장) 방주에 피한 노아 가족과 생물들 외에는 땅 위의 모든 것이 홍수에 쓸려 죽었습니다.	3) 새 출발(8~9장)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창조의 복을 다시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.
4 분산 (10~11장)	홍수 이후 다시 번성한 인류가 바벨탑 사건으로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.		
	1) 새 인류(10장)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종족과 나라와 언어대로 나뉘었습니다.	2) 바벨탑(11:1~9)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여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.	3) 셈의 계보 흩어진 민족 중에 축복받은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.

1. 창조

1) 천지창조(1:1~2:3) : 나눔과 채움의 사역 / 공간의 창조, 질서의 부여, 통치

혼돈 —> 나눔			공허 —> 채움		
1	흑암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심	낮/밤	해/달, 별	낮의 해와 밤의 달	4
2	물 가운데 궁창(하늘)을 두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심	윗물 /아랫물	새/물고기	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	5
3	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바다와 땅을 나누심 풀, 씨 맺는 채소, 열매 맺는 나무 “보시기에 좋았더라” 2회 사용	땅/바다	짐승, 사람	땅 위의 짐승, 기는 것, 사람 복을 주시며 생육, 번성, 정복의 명령 주심 “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”	6

- 1:1/ 창조 사역 전체의 제목인가, 창조 사역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인가?

‘태초에’: 출발부터 창조의 ‘태초’가 종말론적 목적(끝)을 가지고 시작했음을 암시.

‘하나님(엘로힘)’: * 문자적 의미는 ‘신들’. 경의나 위대함을 지시하는 히브리어 복수의 용법(장엄복수).

* ‘엘로힘’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권능을 강조할 때,

‘여호와’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.

‘창조하시니라’(바라):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일 때 사용되는 동사.

- 1:2/ ‘혼돈하고 공허하며(토후 바보후)’: 렘 4:23 유다의 종말에 대한 예고 / 심판을 창조 이전의 공허한 상태에 비유.

‘운행하시니라’: 신명기에서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을 자기 새끼 위에 떠 있는 독수리에 비유할 때 등장.

‘흑암’: 성경에서 ‘악’에 대한 은유로 사용된 단어. 그러나 흑암도 하나님의 피조물(사 45:8).

‘깊음’: ‘물’, ‘바다’를 의미. 바다는 죽음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구원의 도구(출 15:5).

‘하나님의 영’: ‘바람’으로도 해석이 가능. 창세기의 독자들은 출애굽의 상황을 연상했을 것.

1일

- 1:3/ '빛':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(출 24:15-18, 요 1:9-8, 고후 4:1-6).
- 1:4/ '좋았더라'(토브): 하나님께서 흑암을 몰아내신 자신의 사역에 만족하셨음. 영지주의와 금욕주의와의 비교.
- 1:5/ '날(욘)': 하루, 또는 구체적 기관과 관련 없는 문학적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(태양 창조는 4일 째 이뤄짐).

2일

- 1:6-7/ '궁창': 문자적으로는 '넓게 편 판'이라는 뜻. 비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하강하는 현상으로 이해.

3일

- 1:9-10/ '...바다라 부르시니... 보시기에 좋았더라': 궁창 아래 물의 정리. 2일 째 '좋았더라'는 표현이 없는 이유.
- 1:11-13/ 땅을 향해 인간의 위한 생산 활동을 명하심. 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피조물에게 베푸신 강복.
'좋았더라': 2회 사용. 인간을 위한 환경 조성의 완성.

4일

- 1:14-15/ 하늘의 대리 관리자로서 천체의 창조.
- 1:16-19/ '큰 광명체', '작은 광명체': 해와 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강조하는 표현.

5일

- 1:20-21/ 물과 하늘을 채우시는 사역.
'큰 바다 짐승(탄닌)':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혼돈의 괴물(라합, 리워야단과 동의어).
- 1:22-23/ '복을 주시며':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우월한 지위.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최초의 강복.

6일

- 1:24-25/ 땅의 식물 창조(3일)에 이은 동물과 사람의 창조.
- 1:26/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.
'우리': 해석의 어려움. 전통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암시로 이해. 1:2 '하나님의 영'과의 협력과 참여.
'만들자': 유일하게 하나님의 숙고가 앞서 나오는 경우. 창조 행위의 비인칭적 발언을 대체.
동물은 땅에서 '나왔'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심.
'형상': 우리 안에서 타락으로 파괴되었던, 우리의 총체적 본성의 완전 - 칼빈
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에 대한 묘사로 '신의 형상'이라는 표현이 사용됨.
- 1:27/ '사람(아담)':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.
- 1:28/ '정복하고 다스리라': 생육과 번식은 다른 생물에게도 주신 명령이지만 정복과 다스림은 사람에게만 주어짐.
성경의 주요 주제-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람에게 주어진 세상 만물에 대한 대리 통치권.
- 1:29/ 풍성한 양식의 약속. 신을 위한 노동자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바벨론 신화와의 대조.
- 1:31/ '심히 좋았더라': 질서와 풍성함의 완성으로 인한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하심.

7일

- 2:2-3/ 원어에는 각 행에 7개의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 중앙에 '일곱 째 날'이라는 표현이 자리함.
'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':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셨다는 의미.
'안식': * 창조 사역의 완전함. 신명기에서 안식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의 완전함을 가리킴.
* 창조(구속)-안식 언어는 성막 구조에서도 드러남. 백성이 했던 일을 보았고 그들을 축복(출 39:43).
안식일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의 징표임을 증거.
'저녁... 아침'의 반복구가 없음: * 제 7일은 끝이 없고 영원함을 의미.
* 인간의 한 주는 안식 후에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것으로 완성.
* 히 3:7-19: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것을 독려.